



74

자동차제조업 종사자에 발생한 완관절주상골골절 및 무혈성괴사

성별	남	나이	43세	직종	판금, 개선, 보수	직업관련성	높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-------	-------	----

1 개요

정○○은 1987.3. K자동차회사에 입사하여 개선 및 판금작업, 대형버스 도어작업, 설비유지 보수작업 등을 수행하다가 2001.2.16. 추락사고를 당하여 산재요양신청 결과, 몇 가지 사고성 재해는 요양승인되었으나, 좌측완관절 주상골 골절 및 무혈성괴사증에 대해서는 불승인되어 이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.

2 작업환경

인간공학적 조사 결과, 이 근로자가 수행한 개선작업은 왼쪽 손목에 충격이 있고, 과도하게 손목이 신전/굴곡되고, 손목에 무리한 힘이 가해졌던 것으로 판단되었다. 판금작업은 거의 모든 공정에서 수행했는데, 왼손에 쥐고 있는 아테방에 망치의 충격이 많이 가해졌으며, 철판 절단시 왼손에 더 많은 악력이 요구되었다. 대형버스 도어 장착작업시 브라켓으로 조인후 망치로 가격하였으며, 반복적으로 도어를 여닫을 경우 손목이 꺾인 자세로 과도한 힘을 가하게 된다. 설비유지 및 보수작업시 공구를 이용하여 조이거나 풀 때 공구가 미끄러지는 경우 손목의 과도한 꺾임이 발생하였으며, 13.5kg의 해머로 작업할 때는 수회만 작업해도 손목 등에 심한 통증이 발생했다고 한다.

3 의학적 소견

입사 전 특이한 질병력은 없었고, 부친이 위암으로 사망하였다. 담배는 반갑×20년 피웠고, 술은 거의 마시지 못했으며, 평소 근골격계질환으로 약물을 복용한 경력이 없었다고 했다. 사고 전까지, 손목의 통증이 심하지는 않았으며, 며칠 무리한 동작을 피하면 회복되곤 했기 때문에 그냥 지냈다. 1982~86년까지는 타사에서 배관, 용접업무를 하였다.

4 결 론

정○○의 좌측 완관절 주상골 골절 및 무혈성 괴사증은

- ① 입사전 손목부위의 유사한 질환이 없었으며, 입사 14년 이후 진단되었는데,
 - ② 근로자는 오른손잡이지만, 작업수행 중 왼쪽 손목에 통증을 느껴왔으며,
 - ③ 특히 판금작업시는 왼손에 충격을 반복적으로 받았고, 철판 절단작업 등 왼손에 부담이 많이 가는 작업을 자주 수행하였는데, 일부 유사작업자에서 설문결과 반수 이상에서 수부 통증을 호소하였으며,
 - ④ 반복적인 손목 및 수근부 부담 작업시, 미세한 손상이 축적되거나, 수근부의 혈류장애로 작업관련성 주상골 골절이 발생할 수 있고,
 - ⑤ 주상골의 무혈성괴사는 외상에 의한 골절시 가장 흔히 발생하는데, 과거 손목부위의 골절 또는 부상 경험이 없으며, 스테로이드 약물복용 경력 및 기타 골의 무혈성괴사 질환과 관련된 전신질환이 없으므로,
- 작업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.